



# 국제 통화 체제의 동요와 동향

케이즈의 통찰과 리케박카의 예언

일제하에 전후의 세계 경제가  
들어온다면 그는 최대의 공  
급을 파악해 으로 일행을 해  
는 꿈이었다. 그러나 2  
차大战에 이어는 같은 날  
한 대가를 지지 않고 서  
세계 경제는 성장과 경  
제의 기본은 점점 더 암울

진전하여 19세기인  
극복되었던 세계 경제를  
극복하는 문제로는 「사  
회경제」 그것이 학생  
들이 1870년대부터  
죽이 세워하기 시작  
보였던 주제의 한 주제였던  
이미 한계를 드러내

이 불  
같더니 그들을  
세계에 봄  
된내에서  
이다.  
한번이  
『봄』이  
온다. 불  
의 부족을 느끼는 국가에  
대해 이를 장기저리 응지해  
주를 기급까지 확보하여 자  
원부족 대외자원 수입부족국가  
가 많기지도 못 상당적인 자유  
무역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  
서 새로운 전진 발성의 경  
제 혁신을 전개하거

세계적인 이야기이다.  
한 에로 미크만  
년대에 무역 수자 만큼  
속 흐자였다. 그에  
제수지의 흐자는  
할 수 없었으나 무역면  
입초 짜이상의 자본수  
와 원조지, 베워군  
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.  
2. 각국이 어떠한  
이나 환경에서도  
내외적인 자유주의 경  
을 준수해온다라고  
파악 이것이 이루어져  
는가. 그 대안이  
부정적이란 것을  
설명인 것이다.

대학생의 자세  
전 정 수

(도이취과·2)  
속에서 자라나는  
그들이 무엇을  
하여 모른체 자기를  
죽이 어디로 끌었는지  
다이 없는자, 벌리 무  
는 오령주의자, 남을  
주의자, 또는 대포장  
위에 기르부터 자기  
의 욕지리를 거칠게  
무엇이 부경에서  
오류를 범한다. 이러한

二十一

## 형성이 전쟁과 공황유발

경제부에 빠져 나온 지 30년  
여대에 서는 세계화전의  
원인을 임마저 찾는 양태로  
는 너무나 범상치 않다. 하물  
며 생활주체자체나 군수자  
들이 결론이 '본래 원정이  
국제화에 대한 저항'으로  
는 입수할 수 없고, 빼고  
나서 후회로 전락한 듯한  
수단에 호소하게 되는 것  
은 당연한 거울이다 하겠다.  
  
이렇듯 국·영·한·일·영·미·  
세계화전제도의 봉파지 측  
세 경제유대와 금융기구의  
상실을 두고 2차大战(전쟁)  
과 경제위기를 이끄는 원인을  
찾아보면 그간 연락망과  
교류가 확장되었음을 두고  
언급되는 듯한 현상은 그 자체  
로는 그다지 이상적이었을  
것이다. 그러나 그다지  
그 대외적인 경제 세력  
에 대한 미우는 영국  
국제결제안정법원(International Clearing Union)과  
미국의 국제보안연합  
도 학제적 안정기금연합(United and Associated Nations Stabilization Fund)이 있다.  
1947년 7월 미국의 뉴  
욕에서 주권자 우드(Retton Woods)에  
여행한 목적으로  
를 중심으로 한 미국·미국  
사람들이 모여 미국의 화이  
트인이 거의 단번에

것은 너무나 당연한  
일이 때문이다.

이번 혼례는 결단일  
(**既定日**)이지만 예전  
같이나 밭에서 기운지  
심을 풀고 사생을 구하  
거나 필요로 했던 일  
인가?

5. **갈라**가 계속  
력을 지니고 있어야  
한다고 하니 어려워  
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 
나타난다. 그들이 이와  
같은 일을 이해  
하기 어렵거나 불평하고  
불평하고 싶어하는  
등 비록 표면적인  
페이지 때문이 아닌  
경우나 실증은 어렵다.  
제 8~15회(**미상사**)  
는 바쁜 미국족 생활  
지 평생을 조망된다.

60년대에는 체계적  
자기 기술적으로 물을  
마련한 미국이었지만  
부여식 시민은 그에  
시행했던 미국이 70년  
대 미국의 부여식 자본  
민주주의 일상을 보여  
는 72년에는 그에  
따라 부여자리를 포함  
하여 140억 달러의 국제  
자본을 넘어서 미 대선  
결과를 결정하게 되었고  
미국에서는 고작  
갈라에 대한 분분한

빈의자

대학의 본  
방(本鄉)을  
자랑하는게  
일보리지,  
속스피드가  
있는 영국  
에서든 대  
학교수수기정  
신적으로 존  
중되는 것  
같은 듯하니

이. 보내며 흐름을 같이 하  
유일한 일과로 살는다고 한  
게 앞으로서 학생들은 교수  
최고 대우자—에게 지식  
피지 않은 교수의 인간적인  
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.  
영국의 교수들은 전인적인  
가치관지도 모른다. 물론 영  
국은 그 오랜 전통과 역사로  
문화화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  
으나 그들이 대체로 보통은

**대한복장원 은 대학생 여러분을 위한 봉사를 약속합니다**  
제단기술은 여러분의 아르바이트와 해외유학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 
**원장 서상국**

**상의상실은 장학기금을 위한 비영리 부속 기관입니다**  
고급 신사복·양장 양복지는 가져오시거나 홍성라사를 이용해 주십시오  
재단: 서상국 원장(전 조합장·기능올림픽 심사위원)  
재봉: 정한식 대표 서정하

**홍성라사는 상의상실 고객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**  
고급 복지를 판매합니다  
상의상실에서 악선 박으신 고객은 특히 우대합니다

686



